

광주시립예술단이 만나러 갑니다

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시리즈 신설...4월3~4일 첫 무대 시립합창단, 5개구서 '행복한 하모니'... '리디안 팩토리' 등 공연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만난다. 지금까지는 대표 레퍼토리 작품을 주로 선보여 왔고, 문예회관 무대에만 썼지만 이제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했으며, 예술단이 직접 관객을 만나기 위해 움직일 예정이다.

먼저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규형)은 '판소리 감상회'를 시작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단체인 시립창극단의 신규 레퍼토리인 수시공연 '판소리 감상회'는 우리 전통인 판소리의 명맥을 잇고 소리를 대중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희로애락을 관객에게 전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반기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한번 더 선보일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공연 횟수를 더 늘릴 예정이다.

무대에는 시립창극단 단원과 함께 명창, 명고수 등이 함께 오른다.

첫 공연인 4월3일(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는 시립창극단 김연옥 단원이 소리를, 김준영 단원이 고수를 맡아 판소리 '심청가'를 들려준다. 이들은 '곽씨부인 유언 대목'부터 시작해 '중타령' '심봉사 눈 뜨는 대목'까지 판소리 '심청가' 전체를 아울러 선보인다.

김연옥 단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제25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김명만

김일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과 소리꾼으로 알려져있다. 고수 김준영 단원은 각종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4일(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는 김일구 명창과 김청만 명고수가 오르며 김규형 예술감독도 명고수로 관객과 만난다. 이들은 판소리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부터 '할 쏘는 대목'까지를 선보인다. 김일구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이며 김청만 고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2.

광주시립합창단은 광주지역 5개 구를 찾아 시



김연옥

민들과 만나. 광주시립합창단 '행복한 하모니' 공연이 오는 4월5일(오후 7시) 북구문화센터를 시작으로 남구문화예술회관(6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7일 오후 7시), 전일빌딩 245(12일 오후 7시), 서구문화센터(14일 오후 7시)에서 열린다.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고, 좀 더 가깝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휘는 광주시립합창단 이준부지휘자가 맡고, 실력과 뮤지션들로 구성된 재즈 밴드 '리디안 팩토리'가 무대에 올라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브람스 '헝가리 무곡', 로시니 '월리엄텔 서곡',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가수 하림의 '사랑 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안녕', 가수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등이다. 아울러 나폴리 민요 '오 나의 태양',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베사메 무쵸' 등도 들려준다.

전석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다. 문의 062-415-520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삶을 드로잉하다'

정송규 화백전, 4월 24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각의 흔적', '살아있는 감각의 기쁨'. 붓을 놓지 않는 노(老) 작가는 드로잉을 이렇게 표현했다. 드로잉을 할 때면 "개울물이 흐르듯 나의 감성은 살아있었다"고도 적었다.

정송규 화백이 드로잉 작품만을 모은 전시회를 오는 4월 24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정 화백은 지난해 작품 세계를 조망한 책 '정송규와 색채 추상-환희를 향한 시간과 기억의 미학 (JUNG SONG KYU AND COLOURED DOTS)'을 통해 지금까지의 화업을 갈무리하고, 3부에 걸쳐 대규모 기획전을 열었다.

'오늘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주제로 회화 작품을 선보였고 1200여점의 드로잉 작품을 내건 '드로잉' (Drawing)전도 개최했다.

'삶을 드로잉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모두 56점의 작품이 나왔다. '일상을 드로잉하는 게 화가의 눈'이라고 말하는 정 화백은 매년 봄 드로잉 작품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 주제는 작가의 드로잉관과 맞닿아 있다.

"드로잉은 예술가로서의 감각 훈련이요. 자연이나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이 발생 연습을 하듯. 언제나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드로잉을 통해 늘 새로운 감성을 느끼고, 그 감성은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이 되죠."

전시작들은 수채와 물감과 먹물로 대상을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색연질, 볼펜 등 재료와 기법에



'드로잉'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려나가는 작품은 '자연스러운 예술가의 호흡'이다. '삶의 그림일기'인 드로잉 속에 자유롭게 흐르는 선의 흔적은 바로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전시작들은 여인의 몸을 그린 작품이 주를 이룬다. 정 화백은 "나는 드로잉을 통해 단순한 여인의 몸이 아닌 신비한 우주를 보았다"며 "인체 탐구 활동으로서 드로잉 작품을 통해 우주의 생동감과 울동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4월5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5개 구에서 공연을 갖는 광주시립합창단.

광주 동구 '빛의 분수대' 공개 연기

동구 "기술적 문제 보완 후 공개" 문화단체 "작품 무단 도용" 주장

광주 동구가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던 옛 도청 분수대 미디어아트 작품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31일 옛 도청 5·18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빛의 분수대' 개막식이 취소됐다. 동구는 작품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보완작업을 마치고 다시 공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의 분수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광주민예총 등이 저작권 침해를 지적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해 40억 규모의 '문화전당 야간관광조성사업' 콘텐트 개발 및 시스템 운용용역-빛의 분수대'를 공모했다. 그 결과 3차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 업체와 A작가가 선정됐다.

이번에 제안서에 도용됐다고 거론되

는 작품은 지난 2014년 광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처음 공개한 B작가의 '광장의 기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B작가는 "공개 사과와 아울러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민예총 등도 보도자료를 내고 "저작권 침해를 규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작가는 "제안서를 쓰기 전에 B작가에게 작품을 쓰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구두로 했기 때문에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업체와 함께 B작가를 만나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Voice of Spring' 공연

4월7~8일 문예회관 소극장

코로나 19로 취소됐던 광주시립발레단의 'Voice of Spring' <사진> 공연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4월7~8일 오후 7시30분, 9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새로 취임한 박경숙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Voice of Spring'은 발레에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 아트 영상이 더해진 작품으로 여섯개 파트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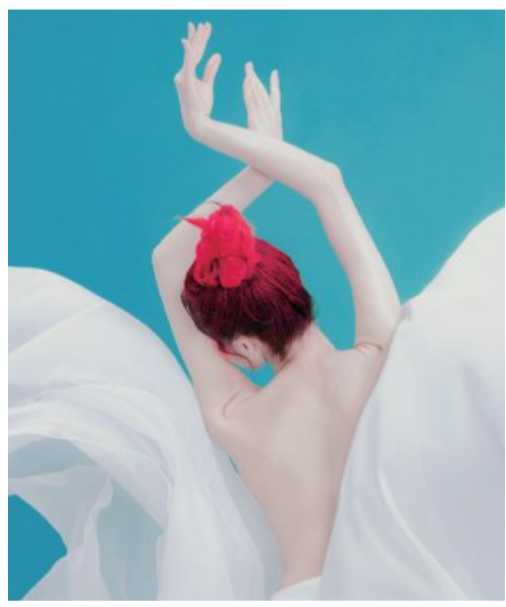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그랑 왈츠'로 막을 올리며 이어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의 안무가인 아사프 메세르가 창작한 2인무

'샘물', 18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러브스토리 '겐자노의 꽃 축제'가 펼쳐진다.

또 베니스 가장무도회에서 만난 주인공들의 화려한 춤을 만날 수 있는 '베니스 카니발',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에 빠지지 않는 무도회 풍경을 모티브로 한 '봄의 소리' 등도 펼쳐진다.

마지막 '탈리스만 그랑 파드도'는 샤프테르부르크 황실극장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바람의 신바유와 부처 탈리스만을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다.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문의 062-522-871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이번 주말엔 '흥부네 아트마켓'으로

갤러리 포도나무, 4월1~3일...김윤이·까시 등 11명 작가 참여

'특별한 아트마켓에 초대합니다.'

갤러리 포도나무(광주시 남구 백서로 79-1)가 개성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흥부네 아트마켓'을 오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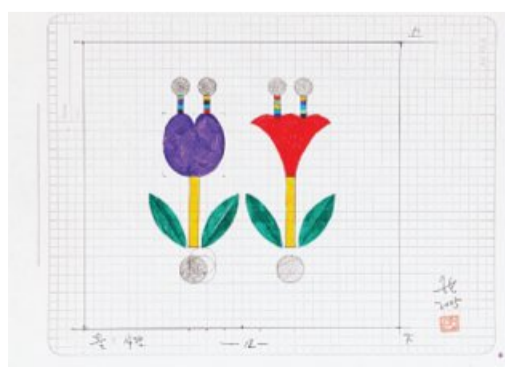
이번 아트마켓에는 김윤이, 까시, 류승숙, 백다희, 백승주, 이영경, 이제, 조미영, 정지선, 한태희, 홍혜경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애정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컬렉터에게 연결하는 일을 좋아하는 흥부(우흥재 그림집 대표)가 제비집이 있는 갤러리 포도나무에서 진행하는 알찬 기획이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미술품 컬렉팅에 관한 알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연(2일 오후 7시)도 마련됐다. 지난 15년동안 예술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온 우흥재 대표가 '미술품 컬렉팅의 시작'을 주제로 강의한다. 예술에 대한 사랑과 미술품을 왜 사는데 대한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는 시

간으로 미술품을 왜 사는가,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어떤 미술품을 살 것인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갤러리 오픈 시간 오전 11시~오후6시. 사전 예약 문의 010 2823 027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3편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은 '2022 ACC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아시아문화예술 세계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아시아 동시대 담론을 반영한 창·제작 작품을 무대에 올릴 국내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작은 모두 3편으로 해외 극장·예술단체와 공동제작, 오는 10월 ACC 아시아문화주간 기간 본 공연 무대에 올릴 중극장 규모 1편, 11월 시범 공연을 거쳐 내년 본 공연으로 발전시킬 대극장

규모 및 중극장 규모 작품 1편씩이다. 선정된 작품은 창·제작과 실현 비용 등 총 9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ACC는 올 초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 '전쟁의 슬픔' (바오린 작)을 기반으로 덴마크 오딘극단과 국내 제작진, 예술가 간의 연구와 교류를 토대로 결과물 '전쟁 후에'를 초연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등은 오는 4월 8일부터 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1-4460.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공공도서관, 4월 12일~18일 독서문화행사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제58회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강연과 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첫 프로그램인 '작가초청강연'은 4월12일 오전 10시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엄마의 전곡은 내 아이'의 김미라 작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날 행사는 지역의 독서문화발전과 문화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김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코로나 19로 흡스쿨링을 하며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수제도장 만들기'와 '키링 만들기'가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 필수다. 접수는 서구공공도서관에 방문 및 전화(062-654-4306)로 하면 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